

“JPL’ 덕분에 진짜 ‘왕자’처럼 살고 있죠”

시경초대석

원소 트롯신동 양지원

데뷔 20년차. 무대 공연 횟수 5000번 이상. 가수 홍잠언과 정동원에게 ‘가수의 꿈’을 심어 준 사람. 얼핏 봐도 상당한 내공이 느껴지는 프로필이다. 경력과 공연 횟수만 놓고 보면 분명 중견 가수급이다. 놀랍게도 이 프로필의 주인공은 아직 이 립(而立: 30세)도 지나지 않은 청년이다. 트로트 가수 양지원.

‘프린스’는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지요?(웃음)

제 팬클럽 이름이 ‘JPL’입니다. ‘Ji Won Prince Love’의 약자죠. 우리 팬분들께서 계속 저를 ‘왕자’라고 불러주시다니, 저도 모르게 스며들었어요.(웃음) 그래서 지금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제가 ‘왕자’라고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하.

고향은요?

태어난 곳은 부산인데요. 본적은 충북 영동으로 돼 있습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제가 갓난 아기 때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데뷔한 시기가 언제죠?

4살 때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방송 출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 데뷔한 건 10살 때예요. 초등학교 3학년 무렵이죠. 그때 ‘남인수 가요제’라는 큰 가요제가 열렸는데, 거기에 나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때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작곡가 정의송 선생님과 인연이 닿아 곡을 받게 됐죠. 이후 대형 트로트 회사를 통해 가수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트로트 신동으로 깜짝 데뷔를 했는데, 이로부터 3년 후 출연히 일본으로 건너가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본 토폴비아 레코드 회사 관계자분들이 어떤 분의 공연을 보러 오셨는데 우연히 저를 보신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저를 트로트계의 ‘남자 보야’로 만들어보자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두 달 만에 짐을 싸서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당시 일본 회사에서 내건 조건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3~4년 동안은 무조건 일본인이 있는 곳에서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나중에 데뷔했을 때 제가 일본 사람처럼 너무 노래를 잘하고 말도 잘하는데, 알고보니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주변을 놀라게 한다는 컨셉이었거든요.

13살이면 아직은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나이인데요. 단신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외로웠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다 일본에서 검정고시로 통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음악이 제 유일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음악 공부와 함께 어학원을 다니면서 일본어도 열심히 배웠는데, 4년 뒤에는 언어가 완벽하게 되더라고요. 이후엔 신주쿠 오모쿠보 근처 코리아타운에서 혼자 자취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당시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약간 오디션 느낌으로 저를 테스트했는데, 거기에서 만장일치가 나와야 프로모션 앨범을 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2년 넘게 더 걸렸죠.

듣자하니 지하철 같은 데서도 앨범을 돌렸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제가 5년차 정도 되던 해에 드디어 프로모션 앨범을 내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건은 회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부푼 꿈을 안고 공연 장소로 갔는데, 버스킹용 스피커가 한 대 놓여 있고, 그 옆에는 이만큼 전단지가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어로 ‘양지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쓰여진 띠를 어깨에 두른 뒤 네모난 밀감 박스 위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는 미션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일본 엔카 가수들이 밟아야 하는 정통 코스였어요. 그 다음에는 약간 노래 교실 같은 곳을 수백 군데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5천엔, 1만엔 이렇게 받은 걸로 생계를 유지했죠. 그렇게 1년 정도 생활했던 것 같아요. 방에 돌아와서는 ‘가요 무대’ 같은 NHK 방송을 틀어지게 보고 따라도 하면서 저 프로그램에 꼭 나가야 할겠다는 야망을 품었죠.

그 정도면 소위 ‘현타’가 올 법도 한데요.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제가 피땀 흘려가며 노력해서 제작했는데 그건 저만 좋은 거였어요. 당시에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금처럼 이렇게 흥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많이 외면당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미스터트롯’을 만났군요.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날 밥상에 앉았는데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미스터트롯’에 한 번 나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제2의 송가인, ‘남자 송가인’을 찾는다”라는 ‘미스터트롯’ 광고를 보신 모양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트로트가 이렇게 외면 받는데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을 나가냐”고 거절했어요. “나는 지금 생활이 너무 좋다.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해도 좋고, 내 통장에 지금 쓸쓸하게 돈이 쌓이는 이 느낌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밥도 먹고, 제



사진=뉴데일리DB

‘트롯천재’ 양지원, ‘한일가요’ 놓는 트롯프린스 ‘날갯짓’ 악곡 출연에 DJ, 작·편곡 실력까지… 알고보면 ‘팔방미인’ 데뷔 20년 기념앨범… 컨셉은 ‘타임머신, 차기작과 연결

시간에 잠자고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 다시 한 번 그 세계에 발을 들여서 고달픈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딱 잘라 말을 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 소원인데 한 번만 좀 도전해보면 안 되겠니? 엄마도 정말 속상하다. 일본에서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마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핑계를 대는 것도 이제 한계다”라고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나가니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가 귀에 맴

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힘들게 이력서를 써서 TV조선에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양지원 씨, 예선 보러 오셔도 될 것 같아요”라고. 그때 제가 첫 번째로 불렀던 노래가 ‘미스고’라는 노래였는데, 당시 율하트를 받으면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양지원이라는 가수가 세상에 나오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미스터트롯’ 이후의 행보가 궁금한데요, 어쨌든 핫스타가 됐어요. 근데 뭐랄까 더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소

강 상태를 보인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제가 많이 부족했더라고요. ‘미스터트롯’을 꼭 모니터링해 보니, 대중들이 생각한 양지원의 노래 실력은 정말 머리 위에 있는데, 실제 저는 바닥에 있더라고요.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양지원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걸어야 하고,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대중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고민 끝에 앨범을 내셨죠.

지난해 ‘도돌이표’라는 컨셉트를 갖고 ‘리프라이즈’라는 앨범을 발매했어요. 앨범에 있는 ‘선물’이라는 노래와 ‘건배’라는 노래는 제가 작사·작곡·편곡까지 다 한 노래예요. 그 중에서도 ‘선물’이라는 곡은 저를 1년 동안 기다려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을 위해 만들었죠. 앞서 제가 팬 여러분에게 “저를 안 떠나 주시고, 1년 동안 제 곁에서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제가 뭔가 노래로써 좋은 목소리로 꼭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편곡하고 가사도 많이 바꾸고 정성을 쏟았죠. 마침내 그 노래를 공개했을 때 팬 여러분들이 듣고 많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다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올해로 데뷔하신 지 20년이 됐죠? 이 정도면 거의 중견 가수 아닙니까? (웃음)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앨범’을 지금 준비 중이 시라고요?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드라마 타이즈로 뮤직비디오 촬영을 끝냈고요. 이번 앨범과 다음 앨범이 연결되는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힌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타임머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앨범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앨범 안에는 양지원의 20년을 고스란히 담아넣은 신곡들로 채워졌고요. 10곡 정도의 트랙리스트가 발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편곡하고, 스케줄이 끝나면 제작업실로 가서 새벽까지 곡 작업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중에 지금 악곡도 출연하시잖아요? 열기가 굉장히 뜨겁던데요. 어떻습니까?

연기를 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부르거든요. 노래를 부르니까 더 그 감성에 빠져 들 수 있는 것 같고, 양지원의 120%를 더 보여드리려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감독님한테 “제가 발견기인데, 과연 잘 할 수 있을까요?”라고 여쭙봤거든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안 되는 건 없다. 무조건 해보자”고 용기를 주셔서 하게 됐습니다. 베테랑인 인호 선배님, 양금석 선배님 등 많은 선배분들과 함께 연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엔 아무 것도 모르고 대본만 열심히 읽었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니, 선배님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 주시면서 “너 연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뭔가 울컥 하더라고요. 약간 ‘불효자는 읍니다’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우리 국민들의 애환을 담은 작품이에요. 지금 전국 콘서트를 하는 중이니 기회가 되시면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부모님께는 정말로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오셔서 다함께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영형 기자

신간 서적

<p>인플레이션에서 살아 남기: ‘애프터 인플레이, 누가 돈을 벌까?’</p> <p>오건영 지음 페이지2북스 404쪽 16,920원</p> <p>저자 오건영은 신한은행 WM그룹의 부부장으로, ‘글로벌 경제 1타 강사’ 외에 또 다른 애칭은 ‘대한민국 최고의 Fed(연준) 전문가’다. 글로벌 시장의 폭주를 막아줄 유일한 파수꾼이 Fed이므로, 이들의 행보가 곧 문제를 해결해줄 실마리가 될 것이다. 오건영 저자는 이 책에서 연준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보고 경제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안전한 투자법은 무엇인지 해설해준다. 또한 2021년의 투자 환경과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짚어보고, 현재를 기점으로 가장 유력한 2가지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p>	<p>변화하는 세계 질서</p> <p>레이 달리오 지음 송이루·조용빈 옮김 한빛비즈 616쪽 34,200원</p> <p>〈원칙 Principles: Life & Work〉으로 전 세계의 사랑을 물론, 국내 독자들도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레이 달리오가 새로운 책으로 돌아왔다. 〈원칙〉이 그의 인생과 회사 경영에 대한 원칙을 밝힌 책이라면, 이번 책에서는 지난 500년간 주요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역사적 패턴을 파악해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를 밝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려준다. 그의 새로운 책 〈변화하는 세계 질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대처하기 위한 레이 달리오만의 원칙들을 담았다. 최근 올라온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요약한 유튜브 영상은 조회수 1,219만 회를 넘기며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증명했다.</p>	<p>나의 첫 NFT 교과서</p> <p>황성배·전래훈 지음 페이지2북스 256쪽 15,300원</p> <p>이 책은 이제 막 NFT의 세계에 뛰어들 사람들을 위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NFT의 방대한 사전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보다 지금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래서 NFT 어떻게 하려고?’에 대한 답만 압축해서 담았다. 회사 CEO, IT 기술자에게나 필요할 복잡한 용어 설명 대신 지금 당장 NFT를 활용하고 싶은 초보자에게 필요한 핵심 상식과 함께 실제 암호화폐를 매수하여 나만의 NFT를 만드는 과정을 이미지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영어를 몰라도, 블록체인을 몰라도 이 책을 읽고 나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p>	<p>메타버스 시티: 메타버스 캔버스에 그리는 도시이야기</p> <p>심재국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268쪽 13,500원</p> <p>우리는 대변혁의 변곡점에 서 있다. 변화의 파도 속에서 생존을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저자는 그 해답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찾는다. 2차원 좌표에 3차원 공간 정보를 덧입히고,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로 무장한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미래를 제시한다. 또한, 현실 도시에서의 문제를 디지털 가상 도시에서 해결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의 모든 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현실 도시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스마트 시티에서 인류 미래의 답을 찾아본다.</p>	<p>부의 변곡점: 돈에 쫓들리던 가난한 직장인이 불과 2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비결</p> <p>김태형 지음 한빛 미디어 312쪽 16,200원</p> <p>모든 걸 아야했던 돈. 쫓겨가게 가난했고, 19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며 시작했던 결혼생활. 저자에게 돈은 ‘생존’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우연히 시작한 스마트폰스토어로 부의 변곡점을 만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놀라게 변화시켰다. 변화하려면 행동해야 한다. 책을 다 읽어도 누군가는 습관처럼 유튜브를 켜고, 누군가는 책 내용을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스마트폰에 입점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쇼피몰은 나와 맞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며 또 다른 돈 벌 거리를 찾아볼 것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 책을 읽은 뒤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라.</p>	<p>부의 변곡점</p> <p>강호동 지음 위즈덤하우스 288쪽 14,850원</p> <p>이렇게만 하면 장사는 저절로 됩니다. 평범한 골목에 핫플레이스로 만드는 라라브레드 이야기</p> <p>잡설 석촌호수 옆 송리단길. 지금은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곳이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허름한 원룸촌 뒷골목이었다. 이곳을 지금의 핫플레이스로 만든 동네 뺑질이 있다. 라라브레드는 발달하지 않은 상권에 들어가 직접 상권을 이끄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공간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걸까? 라라브레드를 만든 강호동 대표는 20년간 각종 사업장에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법은 몸으로 터득하며 가난과 장애를 딛고 일었다. 이 책에서는 그가 겪었던 시행착오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며, 성공 창업의 노하우를 세심하게 알려주고자 한다. 장사를 시작하려는 이들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 내용들을 담았다.</p>
-------------------------------------------------------------------------------------------------------------------------------------------------------------------------------------------------------------------------------------------------------------------------------------------------------------------------------------------------------------------------------------------------------------------	------------------------------------------------------------------------------------------------------------------------------------------------------------------------------------------------------------------------------------------------------------------------------------------------------------------------------------------------------------------------------------------------------------------------------------------------------------------	-------------------------------------------------------------------------------------------------------------------------------------------------------------------------------------------------------------------------------------------------------------------------------------------------------------------------------------------------------------------------------------------------------	----------------------------------------------------------------------------------------------------------------------------------------------------------------------------------------------------------------------------------------------------------------------------------------------------------------------------------------------------------------------------------------	------------------------------------------------------------------------------------------------------------------------------------------------------------------------------------------------------------------------------------------------------------------------------------------------------------------------------------------------------------------------------------------------------------------------------------------------------------------	-----------------------------------------------------------------------------------------------------------------------------------------------------------------------------------------------------------------------------------------------------------------------------------------------------------------------------------------------------------------------------------------------------------------------------------------------------------------------------